

민주노총, 민중총궐기5적·노동개악주범 새누리당 규탄

8 홍미리 기자 | 11월 11일 15:57

“11.14 민중총궐기로 분노 표출, 12월 노동자 총파업으로 박근혜-새누리당 심판할 것”



▲ 민주노총이 11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주범인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민중총궐기 5적이며 노동개악 주범인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11.14 민중총궐기와 12월 노동자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재벌정치를 몰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 5적 노동개악의 주범인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14일 민중총궐기와 총파업투쟁을 경고했다.

총연맹 임원과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은 ‘민중5적 노동개악주범 새누리당’이라고 적은 14개의 분노상자를 걷어차 분노를 표출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려 했지만 새누리당은 그 무슨 ‘국민소통국’ 당직자라는 사람만 내보내 참가자들의 반발을 샀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지난 9월 15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대 법안을 입법발의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업규칙 변경과 쉬운해고 가이드라인을 다음달에 발표하겠다고 했다”면서 “노동자 임금을 깎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대재앙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세월호 학살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노동자 투쟁의 역사와 흔적을 지우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까지, 그 파렴치한 죄상은 일일이 열거조차 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죽기를 각오하고 민중총궐기와 12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이며, 노동자민중을 살리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는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변백선 기자

남경남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재벌과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노동착취로 인해 우리 국민이 계속 가난해지는데, 점입가경으로 박근혜 노동개혁으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고 눈을 부라린다”고 말하고 “박근혜 살인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5적 노동개혁 새누리당 규탄한다!”

“쉬운해고 노동개혁 새누리당 규탄한다!”

“저임금 비정규직확산 새누리당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재벌비호 노동악법 철회하라!”

“민중총궐기 총파업으로 새누리당 심판하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새누리당을 청와대, 재벌 등과 더불어 민중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오는 14일 10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고 전하고 “11월 14일 10만 명, 아니 15만 명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민중 5적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재벌세상인데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혁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 행태는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라면서 “노동유신(維新)이자 ‘노동쿠테타’를 새누리당은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하고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우리는 총궐기 총파업으로 펼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민중5적'노동개악주범'새누리당'이라고 적은 상자를 힘껏 던져치는 퍼포먼스를 gk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장석주 서울지역본부 수석본부장, 구권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은 각급 단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개악과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11.14 민중총궐기와 12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조직 대표자들은 '민' '중' '5' '적' '노' '동' '개' '악' '주' '범' '새' '누' '리' '당'이라고 적은 분노상자를 힘껏 던져치며 비정규직 확산과 쉬운 해고를 도입해 노동자를 학살하려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민중5적 노동개악 주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노동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하려 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소통국 당직자라는 사람을 내보내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했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항의서한을 찢어버렸다.



▲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새누리당 민원실에 전달하려 했지만 국민소통국 책임자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밖에서 받으려 했고, 분노한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항의서한을 찢고 있다. © 변백선 기자

